

CIRレポート10月号（韓国）

「ハングル、570歳おめでと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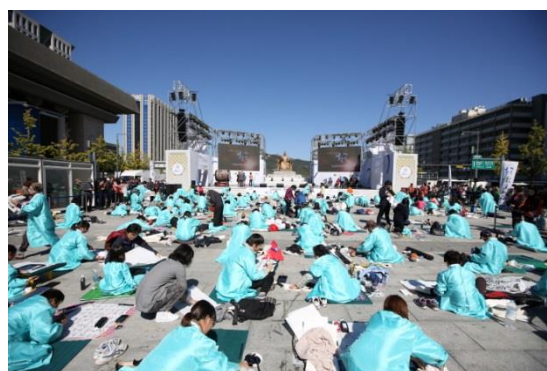
国際交流員 ^{ペ ユンジュ} 裴 允珠（韓国）

こんにちは！韓国の国際交流員ペ・ユンジュです。

皆さんは、「韓国」といえばすぐ思い浮かぶものは何ですか？色々なことがあると思いますが、私は最初に思い浮かぶのは韓国固有の文字である「ハングル」です。皆さんはハングルについてどのくらい知っていますか？

実は10月9日はハングルの創製して世界に発行したことを記念し、ハングルのすばらしさを称えるための祝日である「ハングルの日」です。国内外でその科学性と優秀性が認められている「ハングル」は、頒布されてから今年で570年を迎えました。

ということで、今回は「ハングル」と「ハングルの日」について皆さんに紹介したいと思います。



<ハングルの日のイベントの風景>

■「ハングル」が作られた背景

「ハングル」の元々の名前は「訓民正音（フンミンジョンウム）」で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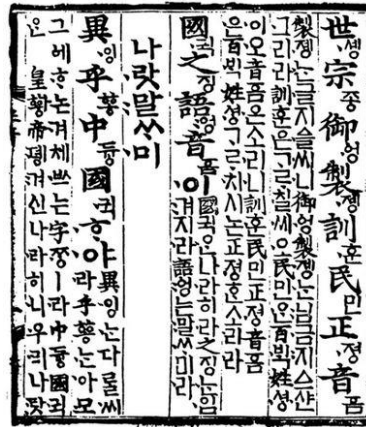
ハングルが作られる以前から韓国語は存在しましたが、それを表記する文字がなく、すべて漢字で書かれていました。しかし、すべての韓国語を漢字で表記することはできませんでした。そして、支配階層以外の多くの民衆は漢字を覚えることが難しかったので、文字が分からないまま暮らしていました。

これを哀れに思っていた朝鮮の第4代国王であった世宗（セジョン）大王は、1446年、誰でも簡単に学んで使えるハングルを作り、目的や解説を記した「訓民正音（フンミンジョンウム）」を編纂しました。つまり、「訓民正音（フンミンジョンウム）」は世宗大王が作った文字の名前であり、その文字を説明した本の名前でもあります。ちなみに、「訓民正音（フンミンジョンウム）」は「民を教える正しい音」という意味です。民のために君主が簡単に学べる文字を直接作ってくれたのは世界で唯一だそうです。

ユネスコはこのような「訓民正音（フンミンジョンウム）」創製の意義とハングルの価値を高く評価し、1997年10月、『訓民正音解例本（訓民正音を作った目的と文字の使用方法が書かれている解説本）』がユネスコ世界記録遺産に登録されました。また、識字運動に貢献した世界各国の個人や団体には世宗（セジョン）大王の名前を取った「世宗大王賞」を授与しています。



<世宗大王(セジョンデワン)>



<訓民正音>

나랏말싸미 中國國에 달아
 文^문字^자와 로서 르스 못디 아 니 흘
 이 런 전 초 로 어 린 百^백姓^성이
 니 르 고 저 흥 배 이 셔 도
 무 촌 내 제 쓰 들 시 러 퍼 디
 문 흥 노 미 하 니 라
 내 이 를 爲^위 하 야 어 엇 비 너 겨
 새 로 스 를 여 語^어字^자를 鳴^명 고 노 니
 사 례 마 다 히 여 수 빙 니 겨 날 로 부 메
 便^편安^안한 키 고 저 흥 산 루 미 니 라

■ 「ハングル」の特徴

ハングルは子音と母音に分かれており、これらを組み合わせせて表記します。ハングルには 24 の基本字母と 16 の複合字母があり、字母は全部で 40 種類あります。40 種類の文字で表現できない音がほとんどないというのは、ハングルの特徴でもあります。

ハングルの母音の形は高い哲学の意味が含まれています。・(天)、一(地)、丨(人)を基本として宇宙の基本原理を含めているからです。

ハングルの子音の文字である ㄱ, ㅋ, ㆁ, ㆁ, ㆁ の形は舌や唇などの発音器官を表わし、音の強さによって基本字を土台に、一線を加える科学的な原理に沿って作られており、独創的であるだけでなく、誰でも習いやすいです。「訓民正音(フンミンジョンウム)」でも愚かな人は一週間、賢い人は一日でハングルの覚えることができると書かれているそうです。

このように創製時期、創製した人、創製の目的と製字の原理が明らかなことは他の文字と区分できるハングルの特徴です。

■ 「ハングルの日」の由来

ハングルの日の歴史は 1926 年、朝鮮語研究会がハングルを守って、国語を使うのを奨励するため旧暦 9 月 29 日を「カギヤ・ナル(가갸날)」と指定し、始まりました。「カギヤ」は国語学者の周時経(チュ・シギョン)が韓国語を'ハングル'という名称で統一する前まで使用されたハングルの名称です。

「カギヤ・ナル(가갸날)」の名称は 2 年後の 1928 年に「ハングルの日」に変更されました。「ハングル」という言葉は、「韓国の文字」、「偉大なる文字」、「世界の先をいく文字」という意味を持っています。1945 年、「ハングルの日」は新暦 10 月 9 日に確定されました。世宗 28 年旧暦 9 月の上限に訓民正音が頒布されたが、この日を陽暦に換算すると、10 月 9 日だからです。

皆さん、どうでしたか？今回のレポートをきっかけに皆さんがハングルに興味を持っていただけたら嬉しいです。

「한글날의 570 돌을 축하합니다!」

국제교류원 배윤주 (한국)

안녕하세요! 야마구치 현 한국 국제교류원 배윤주입니다.

여러분은 ‘한국’ 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한국 고유의 문자인 ‘한글’ 입니다. 여러분은 한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 월 9 일은 한글을 창제하여 세상에 퍼낸 것을 기념하고, 한글의 우수성을 기리기 위한 국경일인 ‘한글날’ 입니다. 국내외로 그 과학성과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한글’ 은 반포된 후 올해로 570 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호에서는 ‘한글’ 과 ‘한글날’ 에 대해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글날 기념 행사중 하나인 ‘한글문화큰잔치 2016’ 中>

■ ‘한글’ 이 만들어진 배경

‘한글’ 의 원래 이름은 ‘훈민정음’ 입니다.

한글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한국어는 존재해 왔으나 문자가 없어 한자와 한문으로 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한국어를 한자로 표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배계층 이외의 많은 민중은 한문을 배우기 어려워 글자를 모르는 채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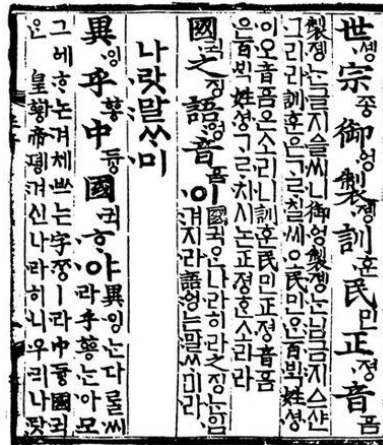
이를 안타깝게 여긴 조선 제 4 대 왕인 세종대왕은 1446 년, 누구나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는 한글을 만드셨고, 한글 창제의 목적과 해설을 기재한 ‘훈민정음’ 을 편찬하였습니다.

즉, ‘훈민정음’ 은 세종대왕께서 만드신 글자 이름이면서 그 글자를 설명한 책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훈민정음’ 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라는 뜻입니다. 백성을 위해 군주가 쉽게 배울 수 있는 글자를 직접 만들어 준 것은 세계에서 유일하다고 합니다.

유네스코는 훈민정음 창제의 의의와 한글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여 1997 년, ‘훈민정음 해례본’ 을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하였습니다. 또한 문맹 퇴치에 기여한 세계 각국의 개인이나 단체에는 세종의 이름을 딴 ‘세종대왕상’ 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세종대왕>



<훈민정음>

나랏말싸미 중국어에 달아
 文(문)字(자)와 로서 르스 못디 아 니 홀췌
 이 런 전 초 로 어 린 백(백)姓(성)이
 니 르 고 저 흥 배 이 셔 도
 무 촌 내 제 브 들 시 러 퍼 디
 문 흥 노 미 하 니 라
 내 이 를 爲(위) 하 야 어 옛 비 너 겨
 새 로 스 들 여 들 字(자) 를 命(명) 그 노 니
 사 를 마 다 히 여 수 비 니 겨 날 로 부 메
 便(편)安(안)키 후 고 저 흥 스 르 미 니 라

■ 한글의 특징

한글은 자음과 모음의 조합으로 언어를 표기합니다. 한글은 기본자모 24개와 복합자모 16개, 총 40개입니다. 단 40개의 글자로 표현하지 못하는 소리가 거의 없는 것은 한글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한글의 모음에는 높은 철학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늘), ㅡ(땅), 丨(사람)을 기본으로 하여 우주의 기본원리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글의 기본 자음 ㄱ, ㄴ, ㄷ, ㄱ, ㅅ, ㅇ은 사람의 발성 기관을 본떠 만들었으며, 소리의 세기에 따라 기본자를 바탕으로 획을 더하는 과학적인 원리에 따라 만들어져 독창적일 뿐만 아니라 누구나 배우기도 쉽습니다. 훈민정음에서도 어리석은 사람은 일주일, 똑똑한 사람은 하루 만에 한글을 깨우칠 수 있다고 쓰여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창제 시기, 창제자, 창제 목적과 제자 원리가 분명한 것은 다른 글자와 구분 지을 수 있는 한글의 특징입니다.

■ 한글날의 유래

한글날의 역사는 1926년, 조선어연구회가 한글을 지키고 우리말 쓰기를 권장하기 위하여 음력 9월 29일을 ‘가갸날’로 지정하면서 시작됩니다. ‘가갸’는 국어학자인 주시경이 우리나라 말을 ‘한글’이라는 이름으로 통일하기 전까지 사용되던 한글의 명칭이라고 합니다.

이 명칭은 2년 뒤인 1928년에 ‘한글날’로 변경되었습니다. ‘한글’은 ‘한국의 글자’, ‘큰 글자’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그리고 1945년부터 한글날은 양력 10월 9일로 확정되었습니다. 세종 28년 음력 9월 상한에 훈민정음이 반포되었는데 이날을 양력으로 환산하면 10월 9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이번 리포트를 통해 여러분들께서 한글에 흥미를 느끼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